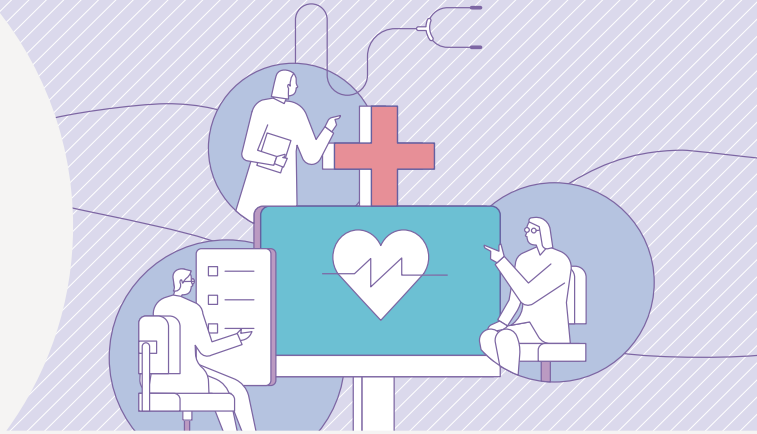


# 전북 2040세대를 위한 출산친화환경 조성방안

조경옥\_ 선임연구위원 여성정책연구소  
전아람\_ 전문연구위원 여성정책연구소



※ 이 자료는 전북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전북 2040세대를 위한 출산친화환경 조성방안'중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구 구성 등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출산과 양육의 핵심계층인 2040세대 삶의 질 제고를 염두에 두는 연구와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출산 정책에서 2040세대가 강조되는 배경으로는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만혼화의 심각성과 청년층의 일자리, 주거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그동안 기혼부부의 양육부담 경감 중심의 저출산 정책에서 벗어나 2040세대 등 모든 세대를 포괄하는 삶의 질 향상으로 정책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관계부처합동정책발표, 2018. 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 출산, 일·가정양립, 일과 주거, 가치관 등 각 영역에서 전북의 2040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 정책요구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전북의 저출산 정책방향 및 관련 핵심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2. 저출산패러다임 전환과 2040세대의 특징

### 저출산패러다임 전환 배경

합계출산율이 1.08명을 기록한 2005년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매 5년 단위로 법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제1차부터 제3차에 이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개요는 다음의 표와 같다.

< 1~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주요내용 >

| 구분   | 제1차 기본계획<br>(새로마지플랜 2010)  | 제2차 기본계획<br>(새로마지플랜 2015)                | 제3차 기본계획<br>(브릿지플랜 2020)           |
|------|----------------------------|--|------------------------------------|
| 기간   | 2006년 ~ 2010년              | 2011년 ~ 2015년                            | 2016년 ~ 2020년                      |
| 비전   |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br>지속발전가능 사회구현 | 저출산·고령사회에 성공적인 대응<br>을 통한 활력 있는 선진국가로 도약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br>사회구현         |
| 추진목표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 점진적 출산율 회복                               |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
| 주요대상 | 저소득 가정                     |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                             | 고용·주거 등 만혼·비혼 대책,<br>일·가정양립 실천문화중심 |
| 정책영역 | 보육지원 중심                    | 일·가정양립제도 비용지원 중심                         | 고용·주거 등 만혼·비혼 대책,<br>일·가정양립 실천문화중심 |
| 추진방식 | 정부 주도                      | 범 사회적 정책 공조                              |                                    |
| 재원규모 | 19.7조원                     | 60.5조원                                   | 108.4조원                            |

자료 : 대한민국정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9, 2011, 2016)

이와 같은 저출산 기본계획에 근거한 막대한 예산투입과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1.05명을 기록하고 2018년 출생아 수는 32만 명으로 출생아 수 30만 명 진입 시점이 통계청 추계보다 18년 앞당겨져자 국민과 언론은 지금까지의 인구 정책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정부는 그간의 저출산 정책의 실패를 자성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2018. 12)’ 발표를 통해 기존의 출산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발표하였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재구조화를 통해 추구하는 저출산 정책의 목표는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로 특히 ‘출산율 1.5명’의 목표가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 주도의 출산장려 정책이라는 반성과 함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제3차 기본계획의 재구조화는 크게 과제 수는 줄이고, 효과성은 높이는(Slim & Smart) 방향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그간의 정책들이 정책 목표와 세부 정책간의 정합성이 낮고,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와 비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로드맵>

|              |  |  |                    |  |
|--------------|--|--|--------------------|--|
| <b>비전</b>    | <b>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b>  |  |                    |  |
| <b>목표</b>    | <b>삶의 질 향상</b>   | <b>성 평등 구현</b>   | <b>인구 변화 적극 대비</b> |  |
| <b>추진 영역</b> | <b>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b>  | <b>비용</b>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br><b>시간</b>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br><b>돌봄</b>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br><b>문화</b>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br><b>기반</b> 2040세대 안정적인 상의 기반(일주거·교육) 조성 |                    |  |
|              | <b>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b>  | <b>소득</b>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br><b>준비</b> 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br><b>참여</b>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br><b>건강</b>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br><b>마무리</b>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                    |  |
|              | <b>인구 변화 적극 대비</b>   | <b>사회시스템</b> 인구구조 변화 대응 핵심분야 대책 마련<br><b>지역</b> 지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인구 대응 사업 활성화   |                    |  |
| <b>추진 체계</b> | <b>거버넌스</b> 민간, 지역, 정부 협력체계 강화<br><b>서비스/재정</b> 공공서비스 안정적 제공과 국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  |                    |  |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정책로드맵 보도자료(2018. 12. 7)

**저출산과 2040세대의 특징**

취업여부나 고용형태, 임금수준과 같은 경제적 자원 수준은 2040세대를 포함한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성별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즉 남성에게 취업은 결혼의 전제조건이고 임금이 높을수록, 직업위세가 높을수록 결혼가능성도 높았지만, 여성은 각 변수간에 유의한 영향에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경제적 자원이 클수록 결혼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의 안정성과 같은 경제적인 부분이 결혼이행이나 가족구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는 주택마련 비용, 결혼 이후 자녀양육 등 생활전반에 걸친 비용부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40세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유보하거나 미이행 하는 사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 결혼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마련'의 영향으로, 최근 높아진 주거부담에 대한 현실이 결혼과 저출산 현상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와 주거는 지역별 합계출산율의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주거정책과 환경조성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역의 우선 정책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040세대의 또 다른 주요 특징 중 하나로는 최근 한국가족의 구성과 유지는 제도적 가족규범이 약화되고 개인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가족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주요 계층으로 2040세대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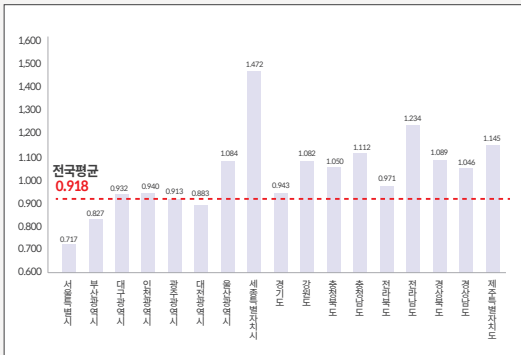
예를 들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생각과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 등 가족가치에 대한 2040세대의 특성은, 규범화 된 결혼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결혼과 자녀출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혼인과 출산의 감소, 비혼 증가 현상은 가족형성이 기존의 사회규범에서 탈피해 개인의 능동적 선택이 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향후 가족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는 개인의 삶의 가치와 주관적 만족, 관계의 질 등이 우선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혼인구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결혼의향은 낮아지고 유보적 태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사회의 미혼화는 저출산의 원인이 아닌 청년 삶의 변화라는 맥락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

### 3. 전북 2040세대의 저출산 인식과 정책육구

#### 전라북도 저출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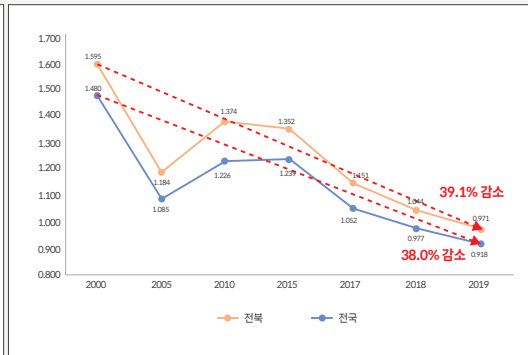
2019년 기준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지역으로 1.47명이다.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2017년 1.15명에서 2년 사이 1명 이하로 하락하였다.

< 시도별 합계출산율 > (2019)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8

< 전국 및 전북 합계출산율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전국의 경우 2000년 대비 2019년 가임기 여성의 감소율이 12.2%이고, 주출산연령 여성의 감소율이 27.5%인 것을 감안할 때, 전라북도의 가임기 및 주출산연령 여성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곧 출산율의 감소로 연결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 전라북도 가임기 여성 및 주출산연령 여성 >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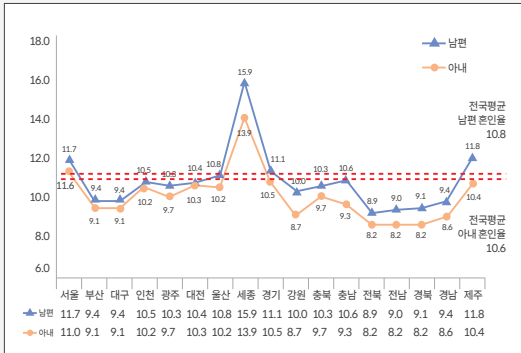
|    |       | 2000       | 2005       | 2010       | 2015       | 2017       | 2018       | 2019       | 증감률   |
|----|-------|------------|------------|------------|------------|------------|------------|------------|-------|
| 전국 | 가임기여성 | 13,747,805 | 13,628,886 | 13,401,552 | 12,831,407 | 12,516,864 | 12,294,729 | 12,065,205 | -12.2 |
|    | 주출산연령 | 4,368,376  | 4,058,971  | 3,746,356  | 3,319,269  | 3,186,671  | 3,156,138  | 3,169,233  | -27.5 |
| 전북 | 가임기여성 | 525,505    | 469,322    | 441,552    | 417,021    | 401,024    | 387,994    | 375,347    | -28.6 |
|    | 주출산연령 | 153,942    | 131,110    | 113,758    | 96,553     | 90,599     | 87,797     | 86,411     | -43.9 |

주 : 가임기 여성은 15~49세, 주출산연령 여성은 25~34세임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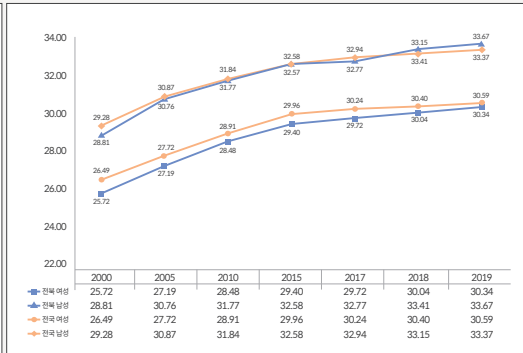
인구 천명 당 혼인건 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혼인율은 2019년 기준, 남편 10.8% 아내10.6%로 비슷한 수준이며 혼인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남편의 혼인율이15.9% 아내의 혼인율이 13.9%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전라북도는 남편의 혼인율이 8.9%, 아내 혼인율 8.2%로 전국에서 남편의 혼인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전국 평균보다 전라북도의 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19년 기준 남성의 초혼연령은 전국 33.37세 전북 33.67세이며 여성은 전국 30.59세 전북 30.34로 전북 남성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전북 여성도 전국 평균보다 낮다.

< 시도별 조혼인율 > (2019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성별 초혼연령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전라북도 2040세대의 저출산 인식과 태도, 정책육구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2040세대의 출산정책에 대한 욕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 출산력 원자료 분석과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각각의 생애주기에 따른 당면과제나 정책육구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3개의 그룹 즉, 결혼 전(미혼), 결혼 후~첫째 자녀 출산 전(신혼부부, 현재 임신 중인 부부 포함), 자녀출산 후 육아기에 해당하는 대상자 총 24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 내용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 결혼과 임신·출산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정책육구, 자녀출산계획과 장애요인, 일·가정양립에 대한 실태와 어려움, 저출산 원인과 대응정책 평가, 삶의 질과 성 평등에 대한 의견 등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주요결과 및 특성을 다음의 표로 요약하였다.

3그룹의 공통점으로는 결혼에 대한 전통적 규범에 대한 동의정도가 낮았으며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3그룹 모두 동일하게 과거의 '남성 노동중심 생애과정'과 '여성의 가족중심 생애과정'의 이분화 된 도식을 해체하고 '일'중심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따라서 일과 돌봄을 함께하는 노동자와 돌봄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돌봄의 사회적 역할과 서비스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결혼과 출산, 추가출산을 위해서는 고용안정과 경제적 비용부담 감소에 대한 대응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마련에 대한 정책지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거론하고 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추구하는 삶의 질 추구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일·가정양립을 위한 노동환경의 개선과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한 돌봄에서의 양성평등 실현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심층면접조사 주요 결과 및 특성 요약>

| 생애단계           | 의식과 실태  |
|----------------|---|
| 결혼 전<br>청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유보 및 부정적 태도(여성&gt;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 및 고용불안/주택마련, 결혼비용부담 - 여성에게 경력단절, 포기과 희생 요구</li> </ul> </li> <li>• 여성의 태도와 인식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중심→노동중심의 생애과정 - 가족보다는 자신의 삶과 행복에 더 집중</li> </ul> </li> <li>• 청년세대의 미래불안: 일자리부족과 빈곤</li> <li>• 신혼부부주택 지원 사업 자격제한 많아 활용도 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수준 완화를 통한 대상 확대 필요</li> </ul> </li> <li>• 삶의 질과 성 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시퇴근, 취미생활, 가족과의 여유시간 - 남성의 가사분담과 육아휴직 활성화</li> </ul> </li> </ul>  |
| 결혼 후<br>자녀출산 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마련을 위한 목돈 부담</li> <li>• 전세자금대출 상환, 부채상환 등 경제적 어려움은 결혼 및 출산시기 지연</li> <li>• 신혼부부임대주택은 지역배당호수 소규모, 접근성부족, 스티그마 등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주택 정책보다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지원 선호</li> </ul> </li> <li>• 자녀출산 장애요인과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불충분, 아이를 맡길 곳 없음,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경력단절이나 독박육아, 가사분담과 육아에 대한 전통적인 성역할</li> <li>-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택구입에 따른 자금지원, 대출이자 보전</li> </ul> </li> <li>• 삶의 질과 성 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li> <li>-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시간의 확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li> </ul> </li> </ul>  |
| 자녀출산 후<br>육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 및 양육비용 등 경제적 부담은 둘째 출산계획 유보나 불확신으로 이어져</li> <li>• 비급여 출산의료비용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후조리원 비용, 제왕절개, 고위험임산부 입원 비용</li> </ul> </li> <li>• 제도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 후 60일까지 소진해야하나, 출산초기는 부모 도움을 받기 때문에 60일 이후에 출산도우미 수요 큼</li> </ul> </li> <li>• 추가출산의 장애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아동학대 등) 믿고 맡길만한 시설과 서비스 부족, 직장에서의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편견과 불이익, 낮은 급여대체수준</li> <li>- 둘째 출산시기가 직장에서의 위치나 과업의 증가, 승진 등의 커리어 쌓는 시기와 맞물려 추가출산 결정 어려움. 승진으로 경제적 여유 확보되어야 둘째 출산 가능</li> </ul> </li> <li>• 국공립시설 부족, 대기 길어지는 문제, 긴급 돌봄 수요에 따른 다양한 돌봄 서비스 부재</li> <li>• 대체인력 없는 육아휴직은 직장동료에게 '민폐'로 인식하는 분위기로 사용 꺼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영업자, 특수직 고용, 비정규직 등 육아휴직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li> </ul> </li> <li>• 저출산의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과 고용불안정, 개인의 삶에 더 집중하는 가치관의 변화, 육아비용 부담, 돌봄 시설이나 서비스의 부족</li> </ul> </li> <li>• 삶의 질과 성 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녀 동등한 육아참여와 돌봄</li> <li>-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출산 의지 높아지므로 자녀와 함께 할 여유시간 확대</li> </ul> </li> </ul> |

## 4. 전북 출산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및 세부추진 과제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의 저출생 일반현황 및 양육환경, 저출산 대응정책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불어 전라북도 2040세대의 저출산 인식과 태도, 정책욕구 등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정책적 함의를 토대로 출산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크게 ①청년층(20~30세대) 결혼지원을 위한 넉지적 정책추진 ②임신·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모성권 보호 ③저출산 사업 통합관리로 정책체감도 향상 ④틈새 돌봄 및 함께 키우는 돌봄 문화 조성 ⑤인식개선 등 5개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첫 번째 정책방향으로서 ①청년층(20~30세대) 결혼지원을 위한 넉지적 정책추진이다. 정책설계에서 넉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정책시행자(정부)가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정책대상자(개인)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층의 실업, 빈곤, 비싼 집값 등 최근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려는 청년들이 불안이나 걱정 없이 결혼을 선택하고 출산을 결정하도록 행동변화를 유도(넉지적 정책)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주택마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등 결혼여건을 조성하는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 정책방향은, 자녀를 출산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지원을 통해 부모가 안정적으로 부모기 전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의 저출산 현상은 모자보건인프라와 상호작용을 일으켜 시설과 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져 지역 간 계층 간 위계와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보건인프라가 특히 취약한 군 단위 지역과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인프라와 서비스의 분배와 확충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저출산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절화되고 파편화 된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전라북도의 저출산 정책을 분석한 본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출산 대응정책 중 가장 많은 건수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 임신·출산 지원 사업이다. 이는 각 서비스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집행과 절차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분절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 시군의 임신·출산 지원 사업들을 패키지화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절한 시간 순으로 배치하여 순차적(임신전→임신→출산전→출산후)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는 틈새 돌봄 및 함께 키우는 돌봄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추진이 고려되어야 한다. 맞벌이 증가에 따른 주말, 야간, 자녀의 방학, 법정전염병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현행 제도권의 돌봄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않은 팬데믹이나 위기상황 등에 발생하는틈새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촘촘한 서비스가 요구되어진다. 더불어 자녀양육은 여성의 몫으로 치부하여 독박육아에 따른 여성의 육아스트레스를 지양하고 성 평등한 돌봄문화 조성하기 위해서는 육아대디 지원 사업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섯 번째로는 저출산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련 교육추진의 필요성이다. 결혼·출산·가족형성에 대해 성별·계층별·지역별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성 평등한 결혼과 출산, 돌봄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성인 대상의 사회인구교육 확산이 필요하다. 인구문제와 고령사회를 인구학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족친화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해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전문강사 양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 단위의 인구교육 진흥 조례 조항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상, 전라북도 2040세대의 출산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각 정책방향에 따른 세부추진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전라북도 2040세대를 위한 출산친화 환경조성 정책방향 및 세부사업>**

| 정책방향                             | 세부사업                       | 기존확대 | 신규사업 |
|----------------------------------|----------------------------|------|------|
| ① 청년층(20~30세대) 결혼지원을 위한 넉지적 정책추진 | 전북형 청년친화강소 기업 운영 및 지원      | ○    |      |
|                                  |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 ○    |
|                                  | 청춘남녀 자원봉사단 운영              |      | ○    |
| ② 임신·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모성권 보호    | 저소득층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지원 사업    | ○    |      |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제도개선(중앙)  | ○    |      |
|                                  | 고위험 임신부의 가사돌봄 지원           |      | ○    |
| ③ 저출산사업 통합관리로 정책 체감도 향상          | 임신축하 패키지 사업                |      | ○    |
|                                  | 신생아환영꾸러미[출산패키지]사업          |      | ○    |
| ④ 틈새 돌봄 및 함께 키우는 돌봄 문화 조성        | 간급 육아돌봄 지원 : 육아지원 119      |      | ○    |
|                                  | 육아대디를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 ○    |
| ⑤ 인식개선                           |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의 개정           | ○    |      |

**<참고문헌>**

권남호(2018), 넉지(Nudge)를 활용한 공공정책: 현황과 시사점, 한국조세제정연구원.  
 김소영(2015), 2015년 제 95차 양성평등정책포럼: 양성평등 패러다임에서 본 가족 그리고 남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우해봉·장인수(2017), 출산에 대한 개인 특성과 부부 특성의 영향, 한국인구학 33(1).  
 이소영·김은정·박종서·변수정·오미애·이상림(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하정화(2018), 부산지역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홍승아·최인희·김난주·김지미(2018), 성 평등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전략연구: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